

2월 IT수출 39.2% 증가

2월 IT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39.2% 증가한 106.8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 IT수출은 글로벌경쟁심화, 유럽재정위기 등 수출 대외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이후 9개월 연속 100억 달러 대 수출을 기록하였다. IT수지는 순산업 흑자(23.3억 달러)의 2.3배 많은 55.0억 달러로 순산업 수지 흑자를 견인하였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33.5억 달러, 117.9%)는 메모리반도체의 수출 호조로 3개월 연속 세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디스플레이패널(23.4억 달러, 55.9%)은 對중국(홍콩 포함, 62.4% 증가) 수출 호조로 9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반면, 휴대폰(18.7억 달러, Δ20.8%)은 원가 절감 및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해외 생산 확대로 수출은 부진했으나 전년동기 대비 세계 시장 점유율은 확대되었다. 휴대폰 시장점유율(%), 삼성+LG+팬택은 ('08.3분기) 25.3 → (4분기) 27.5 → ('09.3분기) 32.5 → (4분기) 31.4이다.

【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는 전년 동월대비)

구분	2009년				2008년			
	2월		1~2월		2월		1~2월	
수출	전체 산업	332.7 (31.0)	642.7 (38.1)	254.0 (Δ18.5)	465.3 (Δ26.7)			
	IT 산업	106.8 (39.2)	218.5 (49.7)	76.7 (Δ24.5)	145.9 (Δ31.9)			
수입	전체 산업	309.4 (36.9)	624.1 (31.4)	226.0 (Δ30.7)	475.0 (Δ31.1)			
	IT 산업	51.8 (31.5)	105.4 (31.0)	39.4 (Δ32.2)	80.4 (Δ34.5)			
무역수지	전체 산업	23.3	18.7	28.0	Δ9.7			
	IT 산업	55.0	113.1	37.4	65.5			

국가별로는 중국(홍콩포함, 46.7억 달러, 56.3%), 중남미(6.4억 달러, 43.6%) 아세안(9.9억 달러, 55.1%) 등 개도국이 수출을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13.2억 달러, 5.5%), EU(13.8억 달러, 19.6%), 일본(5.2억 달러, 42.5%) 등 선진국 수출도 증가되었다.

【 '10년 2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반도체	패널	휴대폰	전체
전체	33.5 (117.9)	23.4 (55.9)	18.7 (Δ20.8)	106.8 (39.2)
중국(홍콩포함)	17.2 (151.4)	13.8 (62.4)	6.2 (Δ15.9)	46.7 (56.3)
미국	2.9 (118.3)	1.2 (99.3)	5.3 (Δ31.4)	13.2 (5.5)
일본	1.9 (68.3)	0.8 (67.3)	0.4 (Δ21.5)	5.2 (42.5)
EU	2.5 (106.7)	3.5 (25.3)	3.1 (Δ21.6)	13.8 (19.6)

한편, IT수입은 전자부품(30.0억 달러, 30.5%), 의료정밀기기(5.2억 달러, 37.8%), 컴퓨터 및 주변기기(6.6억 달러, 29.8%) 등 주요 품목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31.5% 증가한 51.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향후 IT수출은 글로벌 경제 회복과 주력 IT 제품의 높아진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와 패널은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세트제품의 수요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최대 IT수출국인 중국의 긴축 전환, 미국 금융 규제 강화와 유럽 재정위기 등 국내의 불안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점은 수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도체 : 33.5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17.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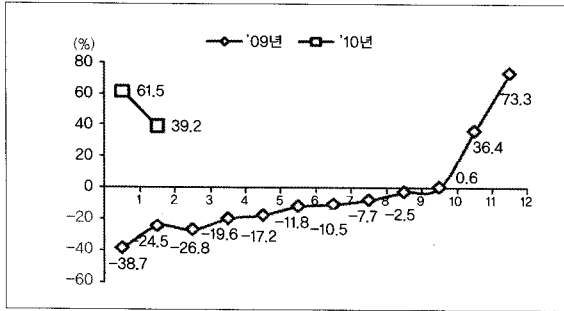
반도체는 메모리 수출 확대로 3개월 연속 세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D램은 제품 수요 다변화(휴대폰용, 서버용 등) 및 국내 업체 비교 우위 제품인 DDR3의 채용비중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195.9% 증가한 13.0억 달러이다.

주요 컴퓨터 제조사의 DDR3 탑재 컴퓨터 출하 확대, 스마트폰 보급 확대, 각국의 전력 소모 규제 강화로 DDR3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편,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 SSD(Solid State Drive), 메모리카드 등 수요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92.5% 증가한 2.1억 달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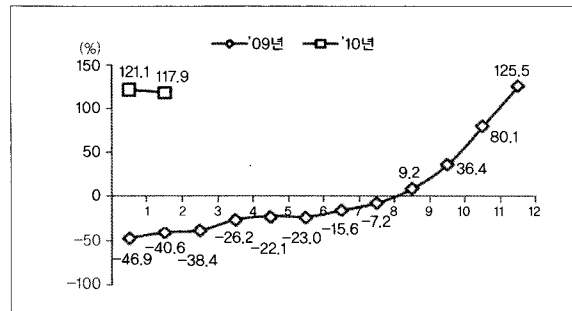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17.2억 달러, 151.4%)이

【 IT산업 주요 품목 수출 증감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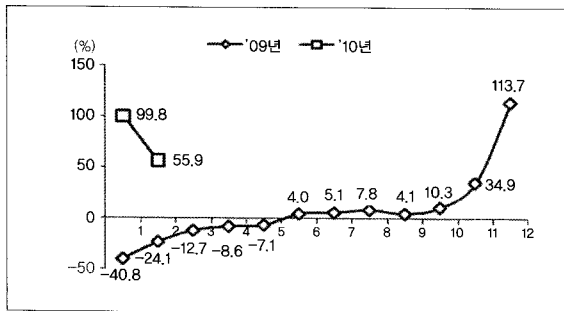
IT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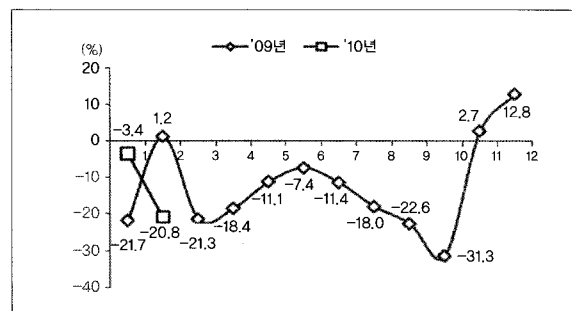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휴대폰



반도체 수출을 견인했으며, 미국(2.9억 달러, 118.3%), 일본(1.9억 달러, 68.3%), EU(2.5억 달러, 106.7%) 등 선진시장 수출도 증가세이다.

효과로 수요 확대 지속되었다.

【 반도체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2	3	4	5	6	7	8	9	10	11	12	'10.1	2
반도체	15.4	18.1	21.1	24.0	25.1	27.0	28.8	32.1	34.3	35.0	34.4	33.1	33.5
	(Δ40.6)	(Δ38.4)	(Δ26.2)	(Δ22.1)	(Δ23.0)	(Δ15.6)	(Δ7.2)	(9.2)	(36.4)	(80.1)	(125.5)	(121.1)	(117.9)
메모리	7.9	8.7	9.8	11.5	12.4	13.3	14.7	16.0	17.8	19.4	20.0	19.7	19.3
	(Δ42.4)	(Δ45.2)	(Δ37.6)	(Δ32.8)	(Δ28.9)	(Δ23.3)	(Δ12.7)	(10.5)	(56.0)	(114.1)	(174.8)	(172.8)	(144.6)
D램	4.4	5.0	5.3	6.3	6.9	8.1	8.7	9.3	10.5	12.4	13.8	13.8	13.0
	(Δ38.5)	(Δ41.2)	(Δ37.4)	(Δ34.0)	(Δ33.5)	(Δ25.0)	(Δ20.6)	(9.6)	(69.1)	(141.1)	(186.4)	(215.1)	(195.9)
낸드	1.1	1.3	1.4	1.7	1.6	1.6	2.0	2.1	2.4	2.0	1.8	2.1	2.1
	(Δ60.2)	(Δ42.5)	(Δ37.6)	(Δ30.6)	(Δ31.9)	(Δ31.5)	(Δ2.4)	(24.5)	(86.1)	(78.0)	(132.4)	(110.0)	(92.5)

※ 메모리반도체에 메모리 MCP 포함

패널(부분품 포함) : 23.4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55.9% 증가

중국의 가전하향정책 보조금 상한선 인상, 중국 노동절 → 월드컵 → 아시안 게임 등 Big Event 및 윈도우7

중국 가전하향정책이란 농촌지역 내수 확대와 가전 산업 발전을 위해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제품 구매 농민에게 제품가의 13%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10.1월 1일 이후 가전하향 제품의 상한가 상향으로 칼라TV 3,500위안 → 7,000위안, 휴대폰 1,000위안 → 2,000위안, 냉장고 2,500위안 → 4,000위안, 세탁기 2,000위안 → 3,500위안 (1위안=186.9원)이다.

패널은 전년 동월대비 55.9% 증가하며, 9개월 연속 수출 증가 시현하였다. LCD 가격(TV용 Full HD, 42인치, \$)은 ('09.8)350 → (9)350 → (10)348 → (11)340 → (12)340 → ('10.1)340 → (2)340이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62.4%), 멕시코(5.0%), 브라질(693.1%), 폴란드(38.2%) 등 주요 생산거점으로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휴대폰(부분품 포함) : 18.7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 대비 20.8% 감소

사업자 마케팅 강화, 다양한 제품 라인업, 해외 생산 확대를 통해 전년동기 대비 세계 시장 점유율은 확대되었다.

휴대폰 시장점유율(% , 삼성+LG+팬택)은 ('08.3분기) 25.3 → (4분기) 27.5 → ('09.3분기) 32.5 → (4분기) 31.4이다. 다만, 원가 절감,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해외 생산 비중 확대와 전년동월 수출 증가(1.2%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출은 감소세이다.

휴대폰 1위 업체인 노키아의 외주 및 해외 생산 비중('08년)은 98%이고, 애플은 대만 OEM업체인 Foxconn에서 아이폰을 전량 생산한다.

지역별로 미국(5.3억 달러, △31.4%), 중국(홍콩 포함, 6.2억 달러, △15.9%), EU(3.1억 달러, △21.6%), 일본(0.4억 달러, △21.5%)등 수출은 감소세이다.

칼라 TV(부분품 포함) : 5.1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 대비 51.2% 증가

칼라TV는 중국 TV 시장의 본격 성장기 진입, 국내 업체 주도의 LED TV 시장 확산으로 수출 확대되었다.

국내업체는 LED TV등 프리미엄 제품의 지속적 출시와 주요 유통채널 마케팅 강화를 통해 글로벌시장 지배력을 확대하였다. 평판TV시장점유율(매출기준, %)은 ('06)25.0 → ('07)28.9 → ('08)33.8 → ('09)35.7이고, LCDTV가격(42인치, \$)은('09.6)985 → (7)994 → (8)1,187 → (9)1,075 → (10)1,020 → (11)1,040 → (12)1,007 → ('10.1)1,004이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63.1%), 멕시코(41.6%), 폴란드(65.2%), 헝가리(69.1%) 등 주요 생산거점에서의 수출은 증가세 유지되었다.

중국(홍콩 포함) : 46.7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56.3% 증가

반도체(17.2억 달러, 151.4%), 패널(13.8억 달러,

62.4%), TV부분품(0.5억 달러, 69.9%) 등 부분품이 對중국 수출을 주도하였다. 휴대폰(6.2억 달러, △15.9%), 모니터(0.8억 달러, △29.3%) 수출은 감소하였다.

【 對중국(홍콩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2	3	4	5	6	7	8	9	10	11	12	10.1	2
금액	29.9	33.9	36.5	37.5	41.4	46.1	46.8	51.3	51.4	50.3	51.5	52.5	46.7
(증감률)	(△10.7)	(△23.5)	(△16.7)	(△13.6)	(△4.8)	(0.7)	(3.8)	(11.2)	(14.4)	(49.7)	(122.2)	(111.3)	(56.3)
중국	23.5	27.4	29.0	29.4	32.4	36.1	36.5	40.4	39.8	38.9	41.2	42.1	36.5
(증감률)	(△12.6)	(△22.9)	(△16.9)	(△14.2)	(△5.2)	(2.3)	(4.7)	(13.9)	(14.6)	(54.4)	(132.8)	(124.9)	(55.3)
홍콩	6.4	6.6	7.4	8.1	9.0	10.0	10.2	10.9	11.6	11.4	10.3	10.4	10.2
(증감률)	(△3.2)	(△26.0)	(△16.0)	(△11.4)	(△3.3)	(△4.4)	(0.6)	(1.9)	(13.8)	(35.4)	(87.7)	(69.5)	(60.2)

미국 : 13.2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5.5% 증가

반도체(2.9억 달러, 118.3%), 패널(1.2억 달러, 99.3%)등 전자부품이 對미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휴대폰 수출(5.3억 달러, △31.4%)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 수출은 확대되었다.

셋탑박스(0.1억 달러, 15.2%), TV부분품(0.2억 달러, 134.4%), HDD(0.1억 달러, 89.3%) 등은 수출 증가세 유지되었다.

【 對미국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2	3	4	5	6	7	8	9	10	11	12	10.1	2
금액	12.5	12.4	14.3	14.5	14.0	14.5	13.0	13.3	13.6	13.6	12.3	12.1	13.2
(증감률)	(4.3)	(△20.2)	(△15.1)	(1.7)	(△3.1)	(△8.5)	(△9.3)	(△15.9)	(△17.0)	(15.4)	(25.3)	(3.2)	(5.5)

EU : 13.8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9.6% 증가

패널(3.5억 달러, 25.3%), 반도체(2.5억 달러, 106.7%), TV부분품(1.5억 달러, 72.9%)등 완제품 생산을 위한 IT 부(분)품이 수출을 견인했으나, 휴대폰(3.1억 달러, △21.6%)은 부진하였다.

일본 : 5.2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42.5% 증가

일본은 휴대폰(0.4억 달러, △21.5%) 수출은 부진했으나, 반도체(1.9억 달러, 68.3%), 패널(0.8억 달러, 67.3%) 수출은 증가하였다.